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인력개발부 유원준

나의 包裝觀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문제가 환경과 밀접한 관계로, 정부의 시책과 관련 물류합리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포장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포장폐기물과 관련, 포장의 가치 기능적인 면에서 새로이 인식, 올바른 포장기술 마인드가 중요하며, 정부에서 농산물 포장에 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산능가마다 포장재가 다르고, 규격 통일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볼때, 포장의 표준화 (Standardization)가 가장 긴급하다고 본다.

포장에 관한 나의 인식

나에게는 가끔 슈퍼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 제품측면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조성표와 포장재질을 먼저 읽어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포장(包裝)에 대한 이해의 시작인 것 같다. 그후 재학시절 "식품포장"이라는 한 학기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포장에 대해 좀더 많이 알게되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작년부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에서 포장기술 교육업무를 하다보니, 제품의 제조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제품에 여러 기능성을 부여하는 포장의 역할이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문제가 환경(環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부의 시책과 관련하여 물류합리화(物流合理化)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포장이라는 분야가 그들과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전

문가들이 요구되는 전망이 밝은 분야라 생각한다. 포장인이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좁은 소견이나마 몇 글자 적고자한다.

포장의 가치기능과 인식의 전환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기존의 포장에 갖는 가치기능(價値機能)의 해석도 점차 달라져가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몇가지를 열거해 보면,

- 첫째, 상품의 보호성(保護性)
 - 둘째, 심리적 기능을 갖춘 판매촉진성(販賣促進性)
 - 셋째, 수송, 보관, 하역등 유통상의 편리성(便利性)
 - 넷째, 적정포장을 통한 경제성(經濟性)
 - 마지막으로, 기업이미지 제고성(提高性) 등으로 대별된다.
- 보호성(保護性)과 판매촉진성(販賣促進性)은 포장에 갖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기능이고, 셋째의 유통상의 편리성(便利性)은 정부와 기업에

서 추진하려는 물류합리화의 입장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되고, 그 정보들이 어느 한곳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로 점차 공유하게 되므로써 각 기업들마다 기술개발면에서 크게 차별화한다는 것은 이윤창출면에서 볼 때, 그다지 높은 비중은 아니다.

다시말해서, 기업들은 생산기술이 아닌 부분에서 Cost를 절감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유통·물류비 부문이다.

그 이전까지 물류(Logistics)비는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못하여 손실비용이 많은 실정이었다.

정부에서도 이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WTO출범 이후 무한경쟁시대로 진

입함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물류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각기 여건이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 부분의 해결이 보다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물류합리화 추진의 시발점이 바로 "포장의 표준화(Standardization)"에 있다.

정부가 물류합리화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농산물포장에 관한 지원사업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농가 마다 포장재사용이 다르고,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통일성이 결여되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포장표준화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적정 포장화 문제도 포장의 합리화·표준화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미지 제고(提高)기능을 보면 C.I. 나 B.I. 와 같이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에 부가하여 환경문제(En-vironmental Problem)에 관한 이미지도 결부시켜야 한다.

환경문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가 포장폐기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포장의 가치기능적인 면에서 새로이 인식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EU)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에 관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각종 규제화하여 타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쌓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로 이용하려

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 예로, ISO 14000 Series 중 EL(Environmental Labeling, 환경마크)이 있는데, 제품 뿐만아니라 포장등에도 이 마크를 주어 환경에 대해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마크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포장재별로 재활용도를 평가하여 마크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된 포장기술마인드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환경부하가 높은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좋지않은 이미지를 주므로, 기업의 사활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포장재 생산업체나 관련업체의 전체적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세하므로, 자칫하면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

포장산업은 그 범위가 무척 넓다. 지류,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각 부문마다 특성이 뚜렷하고 다르므로, 각기 독자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그러기에 "포장"이라는 타이틀아래 하나의 중심점이 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각기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포장은 "표준화", "환경라운드" 라는 큰 명제하에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요소로서의 포장

신소재나 기법등 포장의 본질적인 가치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다음으로 물류합리화의 근간이 되는 포장표준화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環境)부분이다. 기업의 원료조달에서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라운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포장재 기술개발을 해야한다.

정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금융투자 및 세제지원을 더 이상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재활용(Recycle)·재사용(Reuse)을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포장재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의 범국민적 분위기 확산과 같은 시스템적인 정책이 서로 결합되어야 경쟁력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장(包裝)을 물류(物流)·환경(環境)분야와 접목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포장산업이 보다 경쟁력(競爭力)을 갖추는 미래상(未來像)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